

“폭행·욕설로 5년간 노동착취… 도망칠 수 없었다”

SOCIETY

2025년 8월 4일 월요일

광주 A식당 업주, 지적수준 낮은 50대에 ‘가혹행위’ 확인된 병명만 10가지…가해업주 “실수였다” 변명

“수년째 일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육먹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지만 이렇다 할 병원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으로 전국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폭행을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는 지난 2020년 지인의 소개로 40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했다.

A씨는 주방보조 일을 비롯해 식재료 관리, 식단 청소 등을 홀로 도맡았다. 일은 힘들어도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했

던 터라 매일 성실히 일했다.

그는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더디는 등 일반인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형편이 녹록치 않은 탓에 하루 벌이로 생계를 전전하다보니 지적장애 검사, 인지장애검사 등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취직 3~4개월 후부터 주방장이자 업주인 B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아 광대뼈가 내려앉았고, 국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찢어지기도 했다.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밀어트려 코



뼈가 깨지거나 반죽기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중 A씨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폭행 의심 신고를 해 A씨에게 경찰이 확인전화를 했지만 아마저도 B씨가 전화를 빼앗아 무마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주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가혹 행위도 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뜨거운 물에 살은 면을 A씨에 얹어버려 왼쪽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B씨는 이를 ‘실수’라고 치부했다.

B씨는 퇴근한 A씨에게 전화 걸어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재료 손질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괴롭힘을 홀로 견디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진으로 확인한 병명만 화상, 타박상, 골절 등 10여가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강요에 입원을 물론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식당으로 출근해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반항할 수 없었다. B씨가 ‘내가 너를 고용했고, 기초수급자원금 부정 수급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A씨를 잡으러 집을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해서다.

A씨가 출근을 못하면 종업원을 이끌고 추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식당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이뤄지는 무자비한 구타는 A씨의 공포심을 더욱 키웠다.

5년여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임금의 70% 정도만 받았다.

A씨는 “B씨의 기분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달라졌다. 기분이 나쁜 날이면 생트집을 잡아서 폭행했다”며 “아파서 누워 있으면 집까지 찾아와 때리면서 일을 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맛을 때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수만 번을 했지만 B씨에게 붙잡히면 후환이 두려워 말도 못했다”고 울먹였다.

한편,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들은 경찰에 B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44 달출 15:47
예보 19:33 달진 00:29



목포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3
여수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1
순천	미세먼지 확산	구름	27~31
구례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3
광주	미세먼지 확산	구름	25~34
해남	미세먼지 확산	구름	27~32
임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4
흑산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2
고흥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4
진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2

목포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3
여수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1
순천	미세먼지 확산	구름	27~31
구례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3
광주	미세먼지 확산	구름	25~34
해남	미세먼지 확산	구름	27~32
임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4
흑산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2
고흥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4
진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2

목포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3
여수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1
순천	미세먼지 확산	구름	27~31
구례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3
광주	미세먼지 확산	구름	25~34
해남	미세먼지 확산	구름	27~32
임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4
흑산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2
고흥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4
진도	미세먼지 확산	구름	26~32

전신주 화재… 500가구 정전

미세먼지 확산

불타가 전신주를 태워 인근 500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 3일 나주소방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57분 나주시 석현동의 한 전신주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방국은 소방장비 7대, 소방대원 17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8분 만인 오후 10시 25분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력선과 통신선 일부가 타버린 탓에 인근 5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어. 또 소방 추산 31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정전은 한국전력공사가 긴급 공사를 하면서 1시간여 만에 복구. 소방당국은 누군가 쓰레기소각을 하던 중 불티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민간임대사업 조합 설립 못하면 계약금 환불”

법원, 환불 약정 근거 판결…“지연손해금도 지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추진 단체가 약정 기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탈퇴 회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A씨가 무등산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원고에게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비법인 임의단체인 창립준비위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무등산 씨앗포레’라는 이름으로 340여 세대 규모의 10년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며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2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창립준비위가 제시한 조합 설립 시점은 2024년까지 조합 설립이 이뤄지

지 않았다. 이후 창립준비위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고 입주자를 더 모집했으나 2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A씨는 ‘환불 보장 약정’ 보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 ‘조합 미설립과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약정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창립준비위는 행정용 역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고,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무효가 됐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출자금 회수 가능성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면서 “A씨는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맺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액운 없애줄게”…제물 1억 흠친 무속인 구속

제물로 바친 현금을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광산구 한 저수지에 서 30대 여성 B씨가 나무에 걸여 둔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결과 A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고민 상담을 해 온 B씨에게 “현금을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액운이 소멸한다”고 속였다. 이후 B씨에게 혼자 부적을 태우고 오라고 한 뒤 현금을 가로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고, 차량에 남아 있던 현금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8500만원을 흠친 사실도 드러났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푸드키링 체험하는 시민들 휴일을 맞아 2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견학형 행사를 찾은 입석 동구청장과 시민들이 (사)푸드키링의식협회 체험부스에서 바나나를 이용해 돌고래를 만들고 있다.

5·18 회화나무 ‘손자 묘목’ 청와대 이식 추진

‘오월정신’ 계승 의지…국가유산청도 긍정적 반응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회화나무의 청와대 이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최근 강기정 시장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옛 전남도청 앞에 심어진 회화나무 후계목을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질 청와대에 심자고 제안했다.

이는 5·18을 지켜본 회화나무의 후계목을 청와대에 심어 새 정부의 오월정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

회화나무 후계목의 청와대 이식 제안은 5·18과 회화나무의 서사를 교육자료로 펴낸 한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회화나무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행복을 부르는 나무로 알려져 유림 숲과 더불어 옛 광주 고을을 지키는 나무였다.

이 나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군의 초소 역할을 했다. 2012년 8월 태풍 불라벤에 의해 뿌리째 뽑혔다가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2013년 5월 말라죽은 것으로 판정됐다. 안타까운 소식에 한 시민이 지난 2008년 회화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에서 자란 어린 묘목을 가져다 키운 뒤 것을 후계목으로 기증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사한 나무와 DNA가 일치, 회화나무 후계목으로 인정됐다. 이후 계목은 2014년 옛 전남도청 인근 5·18민주광장 내 작은숲공원에 심어졌다.

최근 5·18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해당 교사의 제안을 들은 강 시장

이 국가유산청장에 직접 전달했고, 국가유산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입석 동구청장은 SNS에 “오월의 회화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증인이자 광주의 아픈 역사와 함께한 회화나무 후계목이 왜 광주를 떠나야 하나”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하고 있는 회화나무 후계목이 아닌 가지치기해 자란 ‘손자 묘목’의 청와대 이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 시장은 임 구청장의 SNS 게시물에 직접 “자식 나무 (중) 한 그루를 심자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 임 청장은 “그런 제안이었다면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양동민·송태영 기자 yang00@

고흥 구룡산 ‘동산봉수터’ 용도는 ‘소포봉수’

군·순천대박물관 조사…“외적 경계·해안방어” “지역 내 자체 신호체계 운영…정비·복원 필요”

1991년 고흥군 구룡산 동쪽 정상부에서 발견된 ‘동산봉수터’가 조선시대 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던 ‘소포봉수’로 확인됐다.

이 봉수는 한양으로 신호를 보내는 용도가 아닌 지역 내 자체 감시체계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고흥군,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에 따르면 구룡산 소포봉수는 1531년 이후

고흥에 설치된 6개의 봉수 중 하나로, 폐지 연대는 1871년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봉수의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직경 6.48~8.82m, 높이 3.35m 규모다. 유물은 수마석(물결에 씻겨 닳아서 반들반들한 돌) 1점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6월29일부터 7월15일까지 동일면 덕흥리 산 286-1번지(조사 면적 1000㎡)에 대해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확인된 봉수로 기록돼 있지만 봉수의 운영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포봉수는 조선 중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기록된 봉수로, 중앙(한양)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는 주변 수군진과 연락이 힘들어 자체 신호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봉수의 신호와 관리는 사도진이 담당했다.

봉수는 고흥반도의 동남쪽 해안과 반도 내부로 들어가기 용이한 해장만 입구를 감시·관리하기 좋은 곳이며, 주변 대



고흥 소포봉수 전경

부분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로 주변 수군진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봉수를 설치한 것으로 분

석됐다.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경계하는 수단으로 축조된 소포봉수는 사회랑봉수, 목지두봉수, 다고두봉수, 가화봉수, 가내포봉수와 함께 사도진에 상환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고흥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 교류가 활발했지만 갖은 침입의 대상 지역이다.

특히 조선 초기부터 왜구가 배를 대는 곳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왜구가 자주 출몰해 여러 봉수가 만들어져 해안 방위에 철저히 대비했다.

현재 고흥에는 봉수 24개소가 확인됐다. 이들 봉수의 입지는 남쪽 해안선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앞서 1991년, 2002년 총 2차례 소포봉

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1991년 목포대학교박물관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이곳의 명칭을 구룡산에 동쪽에 위치한다고 해 ‘동산봉수터’로 명명했다.

이후 2002년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이 문헌 기록과 주변 탐문조사를 통해 소포봉수임을 확인했으며, 분청사기편, 흑도편, 도기편 등이 확인됐다.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관계자는 “소포봉수는 동쪽의 녹도진, 발포진부터 서쪽의 사도진, 여도진까지 신호를 연결하는 봉수로 판단된다”며 “소포봉수의 정비·복원으로 역사 문화자원인 봉수의 의미와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